

# 2024 전북 창업 메이커 페스티벌 개최

### 경진원, 창업기업 제품전시·관람객 메이커체험 한마당 잔치 열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전주·익산·군산시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 및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업한 기업들의 제품전시회가 6월 8일 전주 팔복예술공간 이팝나무홀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24 전북 창업 메이커 페스티벌'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우수 초

기 창업기업의 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본 행사는 전북권 3개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협업으로 진행되며, 보육기업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 아이템 홍보 및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면세점 입점 뷰티 화장품 △열당조절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방해석 비누와 비누 받침대 등 우수 헬스케어 및 생활용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관심을 예정이다.

또한, 전북시제품제작센터와 익산시문턱제작지원센터의 참여로 △내면의 전시집 만들기, △3D 반딧불 랜턴 만들기, △MIF 한옥미를 경기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객이 직접 메이커가 되는 참여형 행사로 시민과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2023 전북 창업 한마당 열쑤' 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된 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한전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군산시 소룡동 내초변전소 내에 위치한 한전 전북 트레이닝센터에서 KEPCO 새내기를 위한 전력설비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신입직원 전력설비 견학·체험

### 한전 군산지사, KEPCO 새내기 배전업무 이해 공감대 형성

한전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군산시 소룡동 내초변전소 내에 위치한 한전 전북 트레이닝센터에서 KEPCO 새내기를 위한 전력설비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사업소에 근무하는 100여명 신입직원들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한전 전북 트레이닝센터 전력설비 견학·체험 프로그램은 4가지 유형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공사용 고소작업차량 탑승, △지하 전력구 지중케이블 진단 및 체험, △드론(Drone)을 활용한 전력설비 촬영 및 진단, △불량기저제 관별 과정 등 참여 직원들이 전력설비에 대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민모 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우수한 전력기술인 양성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 농촌진흥청,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출범

###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성 제시 역할 맡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심의·자문기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업 연구개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전 자문기구가 주로 농업 분야 기술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농식품, 기능성·바이오, 공학뿐만 아니라 의약학, 정보기술(IT), 광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

가로 구성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 및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촌진흥청 사업 소개와 함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농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 등을 보고했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농업유전자원센터(국립농업과학원), 밀 연구동(국립식량과학원),



치유농업센터(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반려동물 연구동(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업 연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과 첨단산업을 융

합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폭넓은 식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농업 연구개발 혁신에 박차를 가해 농업·농촌이 처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LH 익산평화 공공분양주택 계약금 500만원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는 익산평화 공공분양주택을 중도금 없이 계약금 500만원으로 선착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주택의 기계약자를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및 법인이거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며, 청약통장사용여부, 거주지 제한,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등과 관계 없이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말 안전진단 최고등급 A를 받은 익산평화는 전용면적 84㎡ 분양주택 1,094세대와 전용면적 39㎡·

59㎡ 5년 임대 후 분양주택 288세대, 총 1,382세대 규모의 대규모 혼합단지

로 2025년 3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공사 브랜드인 하늘채로 단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익산평화지구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역세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인근 평화동 새뜰마을 사업과 송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호재가 잇따라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평화 주택전시관(063-852-2055,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888)과 LH청약플러스(apply.h.or.kr)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성금 지원사업 공모

K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할 반 모아 마련한 지역사랑 성금을 통해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봉사단 측은 전했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기부자 중심의 나눔과 봉사활동 대신 수혜자의 욕구가 적극 반영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총 5000만원 상당 규모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복지를 비롯한 문화·예술·스포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분야와 시설·단체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능 보강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기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각 분야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차량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단체, 공익목적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며, 전북은행을 홍보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특별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특별 우대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1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전북은행 본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또는 사회공헌홍보부(063-250-7154·7346)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관계자는 "지역사회 밀착 소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북은행 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